금주의 법구-〈대열반경〉
겉이 그럴듯해서 좋은사람은 아니다
그 뜻이 깨끗하고 정직해야 하느니
겉으로 사람을 평가하지 말라.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불기 2560년 단기 4349년(음력 5월 18일) · 주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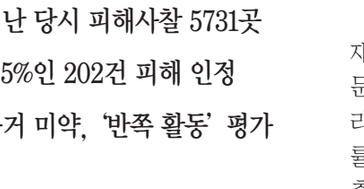
대표안내 (02)2004-8200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제1102호 2016년 6월 22일 수요일

새 체제 맞는 10·27법난위 '기념재단' 건립 선결과제

법난심의위 20일 1기 해단…7월 문광부 소속 2기 출범

10 · 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이하 법난심의위)가 6월 20일 8년간의 1기 활동을 마무리하고 해단한다. 법난심의위는 6월 15일 "국무총리 소속에서 명예회복 사업을 위해 7월 1일 문화체육관광부로 소속을 변경하며 활동을 잠시 종료한다"고 밝혔다.

법난심의위는 지난 2008년 12월 30일 10 · 27법난 피해자 및 피해단체의 명예회복을 위한 관련 법령이 반포되며 출범했다. 2010년 6월 30일까지가 당초 활동기한이었으나 활동기한이 짧다는 지적에 1차와 2차 법률개정을 통해 올해 6월 30일까지로 기한이 연장됐다. 2013년 8월에는 피해 조사 마무리와 명예회복 진행에 따라 소관부처가 국방부에서 문화체육관광부로 변경됐고, 7월 1일 부로 문광부 소속으로 최종 변경되는 것이다.



2008년 출범 후 8년간 활동
법난 당시 피해사찰 5731곳
3.5%인 202건 피해 인정
근거 미약, '반쪽 활동' 평가

도리어 2기 심의위 위상 격하
재단 설립, 정부 반대로 좌초
"주도해 나갈 단체 설립 시급"

피해사실 파악 및 심의 주력한 1기

1기 법난심의위 활동에서는 피해사실 파악 및 피해자 의료지원이 중점적으로 이뤄졌다. 8년의 기간동안 202건이 공식 피해사례로 인정받았다. 피해자는 96명으로 이중 54명에게 의료지원이 이뤄져 총 7억 4,965만원이 지급됐다. 또 조계사 등 52개 사찰과 유관단체가 피해단체로 인정받았다.

하지만 법난심의위가 처리한 피해건수는 법난 직후 발표된 수사내용에 비춰볼 때 매우 적은 것이다. 10 · 27법난 직후 합수단은 연행된 인원이 1929명에 수사한 사찰과 암자가 총 5731개라고 발표했다. 피해자 인정이 채 3.5%가 되지 않는다.

법난심의위 측은 "기록은 있지만 정작 피해신고가 126명에 불과했다. 스님 신분인 피해자들이 수치심을 느껴 신고를 기피하는 특수한 상황이다. 또 법난 후 29년 만에 이를 조명하며 고령의 관련자들이 입적하는 등 외부요인이 있다"고 밝혔다.

여러 문제가 있지만 활동이 저조한 데에는 법난심의위 활동의 근거가 미약한 점이 주요원인으로 지적된다.

10 · 27법난 관련 법령을 연구한 진희권 경기대 법학과 교수는 "현행 10 · 27법난법에는 위원회의 직권조사와 피해자 의료지원 외 배 · 보상에 관련 근거조항이 없다. 피해자 인정도 상이나 사망에 이른 경우만 인정토록 하고 있다. 근거법이 법난심의위 활동을 반쪽으로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명예회복 주체될 '기념재단' 설립 과제

문화체육관광부로 소속을 바꾸는 2기 법난심의위 활동을 앞두고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개정된 10 · 27법난법에는 국무총리 소속에서 국무위원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변경되는 이유에 대해 '그 기능을 축소하려함'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법난심의위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2기 법난심의위는 피해측인 조계종에서 2인, 정부인사 4인, 민간인사 5인 등 11명으로 1기 법난심의위와 대동소이하게 구성하는 것이 논의되고 있다. 하지만 총리급에서 장관급으로 위원회 급이 격하돼 구성인사는 차관급에서 실장급으로 낮아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실무인사의 직급도 따라 낮아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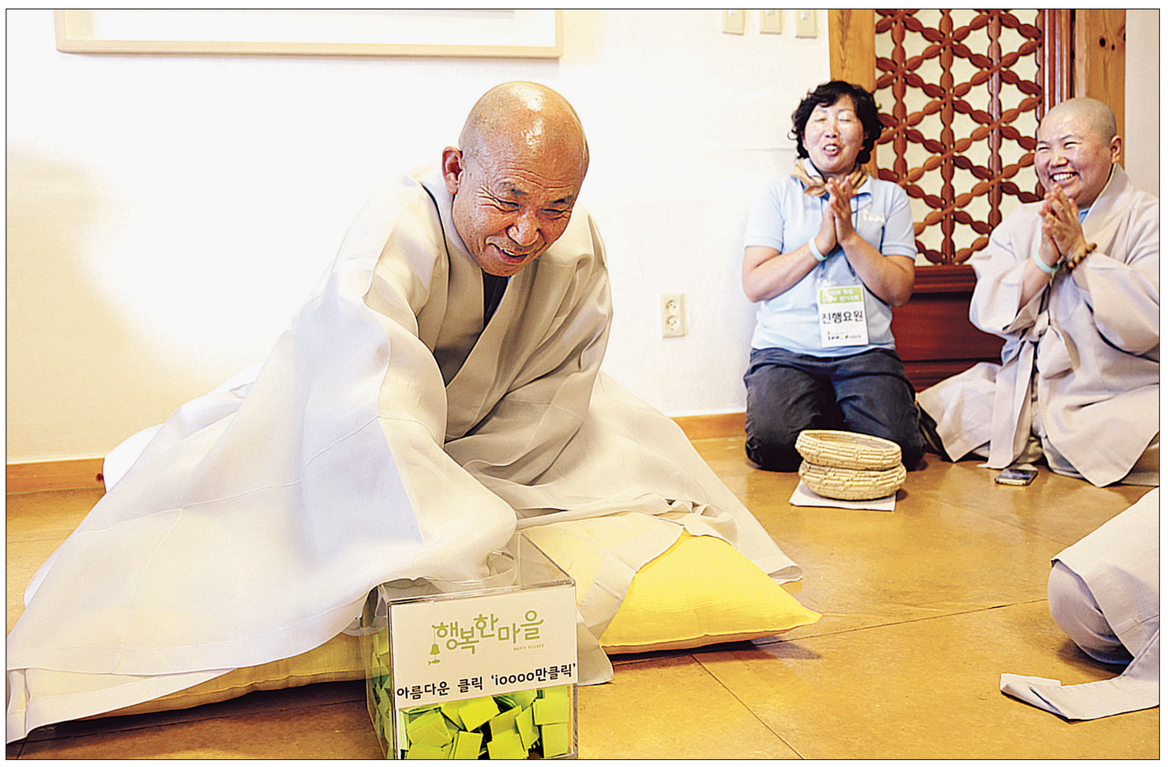
이와 함께 위원회를 대체할 기념재단 설립은 지지부진하다. 5 · 18민주화운동 등 과거사는 대부분 기념재단이 설립돼 명예회복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조계종 측은 2015년 기념재단 설립을 추진했고 강창일 의원 등이 발의해 19대 국회에 상정했다. 하지만 기재부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과거사 문제를 연구해 온 이철호 남부대 교수는 "주체가 될 재단이 없는 명예회복 사업은 단기사업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또 법난기념관 건립에 대한 예산 지원도 자칫 조계종에 대한 특혜로 비춰질 수 있다"며 "교과서 수록, 기념일 제정, 언론사 정정보도, 대국민 홍보 등 과제가 많다. 이를 풀기 위해서라도 주도해 갈 단체 설립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용구 조계종 기획실 차장은 "기념재단 설립은 지난 국회에서 무산됐지만 문광부 차관이 설립을 공언한 상황"이라며 "이와 함께 피해자 예우에 대한 법률 등 근거법령을 점검해 필요시 제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위원장 지현 스님은 "1기 해단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라며 "10 · 27법난의 아픈 상처를 치유하고 명예회복을 위한 발걸음은 멈추지 않고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10 · 27법난은 1980년 10월 27일 계엄사령부의 합동수사본부 합동수사단이 불교계 정화를 명분으로 조계종 스님 및 불교관련자들을 강제로 연행 · 수사한 사건이다. 연행된 이들은 고문을 받기도 했다. 현재 10 · 27법난기념관 부지 매입이 진행되고 있으며 2018년 건평 2만 1,158㎡ 규모로 준공된다. 내부에는 피해자 행장, 동판 명단 등이 전시되며 기념관 내 피해자 요양시설도 들어설 예정이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온 세상이 도솔천 되길 바라며" 사단법인 행복한마을에서 진행하는 '후원 프로젝트 만클릭'이 100회를 맞았다. '만클릭'은 매월 3만원을 후원하는 나눔 프로그램으로 1만원은 회원인 '나'를 위해, 또 1만원은 소외계층인 '너'를 위해, 나머지 1만원은 행복한마을 불사금으로 사용된다. 이에 행복한마을은 6월 11일 해인사 방장 원각 스님을 친견하고, 만클릭 100회 당첨자를 추첨했다. 당첨자 이이순 회원은 직접 선행할 곳을 지정하고 후원금을 전달할 예정이다. **하성미 기자**

경주 황룡사지 사격 확인 '청신호'

신라문화유산연구원 17일 발굴 현장 보고

동서 · 남북 도로 각각 확인
동궁과 분황사로 연결돼
대지는 늪을 메워 만들어져
村主명문 청동접시 첫 출토



황룡사지 남쪽 외곽 정비현장에서 발굴된 동서도로와 석렬배수로의 모습. 신라 왕경의 생활상과 황룡사의 사격을 확인할 수 있는 유적이다.

경주 황룡사와 인근 왕궁, 분황사를 연결했던 도로 시설과 사찰이 건립됐던 대지 축조 방법을 알 수 있는 유적이 확인됐다. 황룡사의 사격과 당시 신라시대의 생활상을 알 수 있는 중요한 발굴성과다.

문화재청과 신라문화유산연구원은 6월 17일 황룡사 남쪽 담장 외곽 발굴현장 설명회를 열고 그간의 발굴 성과를 발표했다.

조사지역에서는 황룡사와 동궁을 연결하는 동서도로와 황룡사 동쪽에서 분황사로 연결되는 남북도로가 확인됐다. 도로면에는 20~30㎝ 정도의 굵은 돌을 깔아 기초를 만들고, 그 위에 잔자갈을 깔아 노면으로 사용했다. 도로의 한쪽에는 너비 100㎝, 깊이 40~100㎝의 배수로를 설치했다. 이후 배수로를 메워 도로를 확장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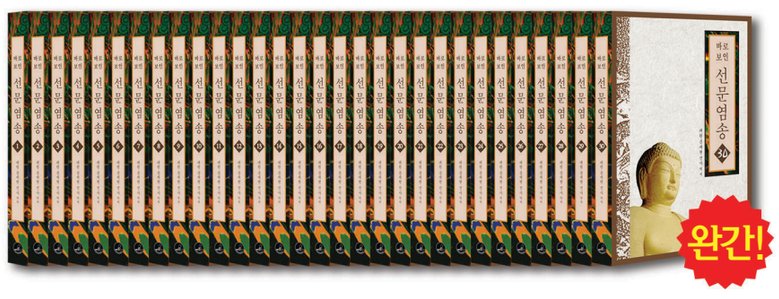
일부 지역에 한해 발굴조사가 이뤄진 탓에 도로 전체와 도로에 맞닿아 있는 광장의 전모는 드러나지 않았다. 단계별 조사를 통해 도로와 광장에 대한 윤곽이 확인될 것으로 보인다.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의 신라왕경(2002)과 황룡사 주변지역(1985) 조사 결과에 따르면, 광장은 너비 약 50m, 도로는 너비 약 15.5m다. 동서도로가 황룡사에서 동궁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황룡사의 대지는 습지를 매립해 조성한 것으로 밝혀졌다. 남쪽에서 북쪽, 동쪽에서 서쪽 방향으로 30도 정도 경사지도록 흙을 교대로 다지면서 쌓았다. 바닥에는 굵은 돌을 깔았고 일정한 간격으로 자갈층을 반복해 다져 놓아 배수처리를 하는 등 신라 시대 토목기술의 진수를 드러낸다.

흙을 쌓은 성토층 아래 습지에서는 6세기 무렵의 토기편이 출토되고 있어 진흥왕 시기의 황룡사 창건 기록과도 일치함을 알 수 있다.

이와 함께 외곽 정비사업 터에서 '달온심촌주(達溫心村主)'라는 촌주 이름이 새겨진 청동접시가 출토됐다. 촌주(村主)는 지방민을 효율적으로 다스리기 위해 지방의 유력자에게 부여한 신라의 말단 행정관직이다. **신성민 기자**

전강 대선사님 인가제자 · 대원 문재현 선사님
세계 최대 공안집, 선문염송 30권 드디어 완간!!



선문염송 30권, 15년만에 완간하다!!

부처님으로부터 역대 조사에 이르기까지 선문의 전 공안을 총망라한 세계 최대 공안집, 선문염송 전30권이 대원 문재현 선사님의 역저에 의해 15년간의 대장정 끝에 드디어 완간되었습니다.

세계 최초로 1,463칙 전 공안에 착어하다!!

1칙 도솔래의로부터 1,463칙 노파암자소각 공안에 이르기까지 모든 칙에 공안의 참뜻을 비추어 볼 수 있는 착어(着語)와 송(頌)을 더하였습니다.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공안의 교과서!!

명안종사의 눈으로 꿰뚫은 바른 번역에 살활자재한 착어(着語)와 송(頌)을 더하였으니 공안을 바르게 참구하게 하는 나침반 역할을 하는 〈공안의 교과서〉라 할 것입니다.

* 도서출판 문젠 031-534-3373 / 010-4520-7963
www.zenparadise.com

화엄경 81권 출간 불사

선문염송 30권, 전등록 30권을 모두 역해하여 세계 최초로 1,463칙 전 공안에 착어한 혜안으로 화엄경 81권의 역해를 마치다!!

불조정맥 제78대 명안종사의 눈으로, 역해와 더불어 각 권과 각 품마다 토끼뿔 자문자답으로 선미를 더하여, 대천세계를 손바닥의 겨자씨 들여다보듯이 한 불보살님들의 지혜와 신통으로 누리는 불가사의한 화엄세계를 열어 보였다.

전자출판으로 1, 2, 3권을 무료로 선공개할 예정이니, 읽어보시고 과연 명안종사의 역저여서 만인에게 권할 만한 화엄경이라고 여기신다면 81권의 서적과 전자책 출간에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